

레슬리 알렌 박사, 에스겔, 강의 2, 에스겔의 환상적 부르심과 사명, 에스겔 1:1-3:15

© 2024 레슬리 앨런과 테드 힐데브란트

에스겔서를 가르칠 때 레슬리 알렌 박사(Dr. Leslie Allen)입니다. 2부, 에스겔의 환상적 부르심과 사명입니다. 에스겔 1.1-3.15.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는 다른 고전 선지자들과 함께 에스겔의 위치를 보았습니다.

이제 본문 자체로 넘어가서 1장과 2장, 3장에서 15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스겔의 환상적 부르심과 사명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7장 끝까지 이어지는 책의 첫 번째 부분의 시작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본문의 자서전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에스겔에게 그가 정말로 선지자라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것은 그의 지위, 그의 예언적 지위에 대한 증거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물론 신약에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 부르던 환상을 기억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과 사도행전에서 세 번 강조된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은 그의 권위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에서는 이사야가 그 놀라운 환상 속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그 환상은 앞으로 에스겔서를 읽을 독자들에게 매우 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외경에는 집회서나 집회서와 구약의 인물에 대한 평론이 있는데, 에스겔에 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룹들의 수레 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의 환상을 본 사람은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기 비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효과적이었고, 그는 이 놀라운 경험 때문에 자신이 선지자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인정한 독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에 대한 비전을 봅니다. 2장 3장 11절에는 에스겔의 실제 부르심과 사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장래 일에 대한 포로 생활의 반응에 대해 경고하시는 여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비전과 사명에 대한 에스겔 자신의 반응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서론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상한 연대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30년째 넷째 달 다섯째 날. 30주년은요? 우리는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제안은, 그러나 그것은 단지 제안일 뿐인데, 그것이 에스겔의 나이를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의 나이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공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조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는 30세였던 것으로 추정 됩니다.

우리는 본문을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2절과 3절로 넘어가면, 우리는 이 두 구절에서만 자서전적 성격을 상실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편집자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연대기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책의 나머지 부분과 일치하는 연대기입니다. 때는 여호야김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 되는 해 그 달 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었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모두 여호야김이 유배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간 절정의 해인 597년에 에스겔의 활동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표준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편집자는 그 30주년의 어색함을 인정하고 책의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흥미로운 의견입니다. 1절에서 에스겔은 그에 대해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설명합니다.

나는 키바르 강 가의 포로들 가운데 있었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다음 구절에서 설명될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실 것을 준비합니다. 그는 매우 중요한 운하인 키바르 운하 옆에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수도 바빌론의 동쪽에 있는 니푸르(Nippur)라는 도시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바르 운하에 대해 다시 언급되는 3장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2절의 연대기에서 알 수 있듯이, 에스겔은 우선 597년에 왕과 함께 추방된 귀빈들과 함께 4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93년이고 학자들은 환상이 일어난 것이 593년 7월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흥미롭게도 에스겔은 제사장으로 불립니다. 그는 이미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었고, 제사장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선지자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그의 제사장 역할의 중요성은 제사장이 가진 임무 중 하나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토라 전통, 도덕적, 종교적 전통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의 제사장 훈련을 그의 예언 활동에 매우 자유롭게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신부님. 에스겔의 과거뿐 아니라 그의 미래 사역의 특징이 될 내용도 언급합니다. 3절 끝부분에는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편집자는 그것을 삽입했고 그것은 책의 나머지 부분이 말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에스겔은 중요한 환상을 받았을 때 이 무거운 손을 신호로 느낍니다. 일어나세요, 에스겔아, 당신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메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습니다. 그는 이 신호, 이 신호를 받았습니다. 1장은 압도적인 장이다.

그것은 에스겔에게 압도적인 내용이었고, 독자들에게도 압도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는 것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1장에서 가장 흔한 단어는 like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랬어, 저랬어, 뭔가 다른 것 같았어. 그리고 그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끝까지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 초자연적이어서 인간의 경험을 거스르는 일이어서 그는 시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자신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설명하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이 비전을 일종의 격하시키고 미스터리를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은 독자와 청중은 이미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개념, 이스라엘의 개념, 고대 근동의 개념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독자와 청중은 원래 알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청중과 독자를 따라잡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어느 정도의 설명이 있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서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언급하고 싶지만 구약성서에서 그 질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구약성경에서는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것은 매우 복잡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방식으로 현존하십니다.

가장 온전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현존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궁전을 갖고 계시고 거기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상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의 나머지 경우는 땅에 관한 것입니다. 매우 분산된 방식으로 그분은 창조의 모든 곳에 계십니다. 예레미야서에는 “내가 하늘과 땅에 충만하지 아니하냐?”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편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의 임재에 비하면 확실히 미약한 임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존재 사이에는 다른 존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던 곳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는 지성소, 궤 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앉아 계시던 보이지 않는 보좌 아래에 있는 발등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 특히 지도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나는 너랑있을 꺼야. 그래서 온갖 종류의 존재감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서 하나님은 심판 때에 임재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개입하셔서 세상에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부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신현(Theophany)에도 존재가 있습니다.

신현(Theophany)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 매우 자주 인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 중에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신현(theophany)과 매우 관련이 있는 성직자의 단어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봉헌되었을 때 궤 위에 계속 존재하는 것 외에 열왕기상 8장과 11절에 영광의 현현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이 서서 섬기지 못하였더라 이는 구름 때문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신현(Theophany)입니다. 수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 자체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밖에 나타나시기를 정하시고 이 신현의 에스겔에게 개인적인 환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복잡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현의 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신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구원의 신현이 있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 대한 환상을 보았고 그 불, 그 불을 통해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임을 깨달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구원의 신현이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의 백성을 이스라엘에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당신은 심판의 신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심판의 신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심판의 선지자가 되라는 에스겔의 사명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주어진 것은 적대적인 계시이며, 에스겔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의 대리인이 될 것입니다.

이 환상은 에스겔 사역의 첫 번째 단계(최대 587년)와 심판의 메시지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심판의 신현을 정당화합니다. 여러분은 시편 18편에서 왕에게 승리, 즉 군사적 승리가 주어졌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현의 용어로 묘사됩니다.

글쎄요, 그것은 왕에게는 구원의 신현이지만, 그의 적들에게는 심판의 신현입니다. 그리고 시편 18편은 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룹을 타고 날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의 발 아래에는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다. 그분은 바람 날개를 타고 신속히 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흑암으로 자기를 덮으시고 물로 덮힌 두꺼운 구름으로 어둡게 하셨느니라

그 앞의 광채에서 우박과 숯불이 구름을 뚫고 나오 더라 . 그분은 화살을 보내어 그들을 흠으셨습니다. 그분은 번개를 번쩍이게 하셔서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에스겔 1장에 있는 우리의 비전은 오히려 에스겔 18장에서 본 것과 같은 형태, 즉 왕과 그의 군대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수사적 표현을 취하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도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았지만 그것은 성전 위에 겹쳐진 하늘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사야만이 볼 수 있었던 놀라운 방식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임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듯이 이제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으며 유배자 중 한 사람인 에스겔에게 이 예언적 사명의 일부로 이 환상이 주어졌습니다. 4절에서 우리는 시편 14편에서 방금 본 항목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의 신으로 묘사됩니다.

에스겔 1장 4절을 보니, 북쪽에서 광풍이 불어오고 그 주위에는 광명한 큰 구름이 있고 불이 계속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18편과 다소 유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의 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람과 구름을 가져오십니다.

이것은 환상이 진행됨에 따라 전개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3절과 14절에서 우리는 번개, 번갯불을 언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비오는 날 어두운 구름 위에 밝은 무지개가 있다고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폭풍에 대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것에 익숙하지 않지만 아직도 가끔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오, 왕을 경배하라, 그의 진노의 수레들, 깊은 천둥 구름이 형성되고 그의 길은 어둡다 폭풍의 날개 위에. 그리고 이것은 시편 18편과 에스겔 1장의 이미지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할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5절에 보면 사람 모양의 생물 네 마리가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가 부르는 천사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비전의 일부입니다. 22절로 넘어가면 그들이 플랫폼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에는 이 플랫폼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 단 위에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의 새로운 측면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동식 왕좌입니다. 왕좌마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체, 초자연적인 생명체, 날아다니는 생명체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날개로 그들은 날아갑니다. 두 날개로 그들은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스랍들처럼 자신들의 몸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움직이는 보좌를 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보좌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보좌입니다.

그리고 이 단은 하늘의 궁창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늘의 장면, 즉 초자연적인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더 작은 비율로 축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종의 하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세상을 덮는 뚜껑인 궁창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다른 성구 참조 시편 97편 3절과 4절로 안내합니다. 음, 그것은 불과 번개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폭풍의 성격입니다.

물론 창조 이야기인 창세기 1장에는 온 세상을 덮는 궁창, 즉 둥근 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궁창 위에 물이 있는 줄은 그것이 투명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늘색이었습니다.

당신은 들여다보았고, 그 위의 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은 세상의 이 뚜껑에 대해 말합니다. 창세기 7장 12절에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 거기에 모든 비, 노아 시대에 하늘이 열리면서 끔찍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글썄, 이 아이디어는 축소되었습니다. 우리는 궁창을 나타내는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우리는 이 천사들의 형상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네 얼굴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 얼굴들은 형태가 다양했지만 사방에서 지구를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 있는 능력의 측면을 반영했습니다.

한쪽 얼굴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황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있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강력한 측면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생명체가 입고 있는 얼굴입니다. 12절에는 영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제 기관이었습니다.

생물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그들의 방향은 이 영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각 생명체는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자신의 방향을 향해 전진하도록 적절한 방향을 가진 생명체에게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이 구조물 내부, 궁창 아래 13절에는 위협적인 불, 번쩍이는 불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제가 시편 97편을 참고하고 싶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 환상의 특징 중 하나는 불이 그보다 먼저 가서 사방에 있는 그의 대적들을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이 경우에 이 심판의 주제가 불의 의미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21에서는 바퀴에 대해 설명 합니다.

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리고 이것은 지상에서의 이동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동식 왕좌가 땅에 떨어지면 이 바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것들도 영에 의해 통제됩니다. 영은 생기를 주는 힘이다. 그래서 영은 일종의 엔진과 운전대 역할을 하여 생물이 가는 곳과 바퀴가 가는 방향을 조직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퀴에 관해 이상한 진술을 했습니다. 16절 끝에서 그들의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퀴 속의 바퀴.

글쎄, 내가 접한 유일한 제안은 전체 바퀴 구조가 구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구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본이나 구 위에는 실제 바퀴의 테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두 개만 넣었는데, 보시다시피 하나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했다면, 위쪽에 하나가 있고, 아래에 하나가 있고, 아래에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일은 이 구체가 움직이고 가장자리에서 적절한 바퀴가 작동하여 특정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 바퀴는 고정되어 있었지만 적절한 바퀴가 작동하려면 지구본이 좌우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바퀴들에 눈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눈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고대의 일반 바퀴가 어떤 것인지를 나타냅니다. 나무 바퀴가 닳지 않도록 금속 못을 강제로 박았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무거운 부츠를 신은 노동자들을 본 기억이 나고, 가죽 밑창은 쇠못으로 보호되어 밑창을 너무 자주 다시 꿰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히려 그랬다. 그런데 여기서는 반짝이는 손톱머리 대신 눈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을 보시는... 이 바퀴가 가지고 있는 이 눈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는 관점에서 주님의 눈을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느니라. 이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에 호소하고 그것들을 하나로 모읍니다.

그리고 22년에 우리는 그 궁창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수정처럼 빛나는 하늘색 궁창입니다. 흥미롭게도 출애굽기에서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허락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여기 에스겔서에서 읽은 내용과 연결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깔아 놓은 것 같은 것이 있어 천국과 같고 맑더라.

그래서, 이 투명한 하늘은 일종의 단단한 하늘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듯이 이곳은 하나님의 보좌를 위한 축소된 플랫폼입니다. 24절에서는 지금까지 에스겔이 본 것을 묘사하는 시각적 환상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청각적인 요소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22절에서는 이 천사들의 날개가 퍼덕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소음을 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소음이 어떤 것인지 말하려고 매우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날개 소리는 큰 물 소리 같고 전능자의 천둥 소리 같았습니다.

군대의 소리 같은 소란스러운 소리. 아, 그 사람 귀에 손을 대고 있었나 보다. 날개가 펄럭이는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각에서 청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5절에서 읽은 내용을 위한 준비입니다. 음성이 있습니다.

이제 25절에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8절 끝에서 다시 언급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청각적 요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26절과 27절에서 그 음성이 언급한 사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일종의 인간 형태를 취하는 실루엣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밝고 화려한 빛의 아우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것은 밝은 무지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폭풍의 비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물론, 활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면 활입니다.

활은 폭풍의 신이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번개 화살이 전송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폭풍 언어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6절과 27절에서 신현의 환상의 정점인 신현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28절에서는 영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상에서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영광.

이 성직자의 말입니다. 이 빛나는 힘. 그것이 그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무엇을 합니까? 그는 예배와 복종에 빠진다. 28년 말. 보자마자 엎드려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판의 신현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적대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스겔의 부르심과 위임을 받았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2장 1절부터 7장까지는 위임이 있다. 우리는 에스겔이 심판의 선지자로 임명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말했듯이, 이 비전은 그의 사역의 첫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그가 그렇게 가혹한 사역을 했던 첫 4년. 그러니까 2:1부터 7까지가 커미션이에요.

2:8에서 3:3까지는 안수에 대한 상징적인 권리이다. 에스겔을 선지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4부터 11까지는 일종의 요약입니다.

커미션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2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그리고 그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3절에서 죽을 운명이라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새로운 RSV에서는 치명적입니다. 여백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NIV에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간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그 생물들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그 모양이 인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실제 인간이 있습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실제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표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초자연적인 힘은 영입니다. 이동왕좌를 조직하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초자연적인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환상을 접했을 때 느꼈던 충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3절은 에스겔의 사명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너를 반역하여 나를 배역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노니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오늘까지 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어지는 여러 장에서 우리는 597명의 유배자들을 찾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역자 또는 반역적인 집, 반역적인 공동체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론 유다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이 반항적인 가문이 됩니다.

그리고 반역은 대조적으로 왕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시당하는 왕, 무시당하는 왕.

그래서 이 군주, 이 하늘의 군주는 이 반역적인 백성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루어야 하고 정리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에스겔이 예언을 가져오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는 하나님 자신의 대변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모든 고전 선지자들에게서 발견하는 표준 공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고전 이전의 선지자들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신성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공식을 사용한
 방식으로 이 조사가 있습니다. 나는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공식을
 여러분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5절 끝에서 우리는 에스겔서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5절입니다.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그들은 반항적인 집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식 공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 자주 발생합니다.

한 주석가는 에스겔서에 그런 일이 126번이나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책의
 다른 부분에서는 항상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취임 장에서는 그들 중에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형식을 취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대표자. 그러나 우리는 이 인식 공식을 계속해서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의 임무가 어렵고 위험한 임무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6절에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썰레와 가시가 너를 둘러싸고 있고 네가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그 뒤에 큰 권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반대가 있을 것이다.

기대하세요. 그것 때문에 연기하지 마십시오. 이사야도 6장에서 비슷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는 이런 종류의 안수식 예식이 나옵니다.

이것은 두루마리를 먹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양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8절에서는 8절이 소개입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더군요. 두루마리를 먹나요? 가죽으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의 위장을 위해 파피루스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8절의 서문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에서 그는 두루마리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다가 3:1~2에서 또 먹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그것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그것을 먹으라고 했고, 그는 그것을 먹습니다.

거기에는 일종의 혐오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씹으세요, 씹으세요. 그리고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는 무엇입니까? 그는 엿볼 수 있습니다.

앞면과 뒷면에 글이 적혀 있었고, 그는 애도, 애도, 비탄의 말이라는 제목을 간신히 보았습니다.

글쎄요, 별로 행복한 두루마리는 아니죠? 그리고 그것은 암울한 내용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리고 그가 심판의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칭호는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리킨다.

에스겔이 예언한 재앙이 임하면 에스겔이 선포할 심판의 결과로 이런 고통과 애통과 애통과 화가 쌓이리라. 593에서 587까지. 그런 다음 3.1에서 우리는 두루마리를 먹는 것이 그의 예언 사역에서 실제 생활에서 하려는 일을 표현한다는 이 상징에 대한 설명을 받습니다.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는 두루마리를 소화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든 다음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 부분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먹어 보니 입에는 꿀같이 달았습니다.

아, 이 끈적한 두루마리와 이 더러운 내용이, 그런데 알고보니 꿀처럼 달더군요. 그리고 그것은 매우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에스겔의 수용, 그가 기꺼이 수용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이라는 만족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의 가혹한 내용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만족감과 수용감 사이에는 큰 대조가 있습니다. 매우 인상적입니다. 4절에 대조가 나옵니다.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들은 597명의 유배자들이다.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당신은 말이 모호하고 언어가 어려운 백성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카드어를 사용했던 바빌로니아인들 사이에 대조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것은 모호한 말이었고 어려운 언어였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히브리어를 아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조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말이 모호하고 언어가 어려운 많은 민족,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민족에게 보내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것은 망명한 민족 집단에 대한 언급입니다.

다양한 팔레스타인 그룹들이 바빌로니아의 노동 수용소에 상륙했고, 유대 사람들은 이 노동 수용소의 한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들을 당신에게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대조가 이루어지며, 여러분이 이 그룹에 가더라도 그들은 여러분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유대 땅으로 보낸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전혀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뚜렷한 대조가 있습니다.

당신을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들을 것입니다. 당신을 페니키아인이나 블레셋인의 노동 수용소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결코 노동 수용소에 있지 않았습시다! 그들은 너무 반항적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매우 생생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말한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는 8절에서 확신을 줍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과 네 이마를 굳게 대었고 네 이마가 그들의 이마를 대하게 하였느니라.

나는 당신을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강인함을 생각할 때 나는 아모스를 생각합니다. 그는 손톱만큼 단단했습니다.

너무 감상적이고 사랑 많고 친절했던 호세아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아모스는 못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책에서 그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그것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그것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거의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끔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가끔. 하지만 거기 있습니다.

대부분 그는 들은 대로 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추방자들에게 다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당신의 말을 듣든 안 듣든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심판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듣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미리 말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머지않아 일어날 일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이 밝혀진 대로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 그는 다시 포로로 보내졌습니다.

포로된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 여호와와 말씀이 이같이 말하라 하라 이 구절에는 매우 가슴 아픈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십시오.

에스겔은 두 진영 모두에 발을 딛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표자였지만 유대 시민이었습니다.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에게는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백성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 여기에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아무리 헌신했더라도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서 그들에게 이 끔찍한 일을 말해야 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동 수용소로 돌아갑니다. 그가 살았던 곳.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이 12절에 나옵니다.

그 영이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서 떠오르자 그는 움직이는 보좌가 천사들에 의해 메어져 하늘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퀴가 땅을 따라 우르릉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날개가 펄럭이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영은 나를 들어올려 멀리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텔아비브의 망명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 강의에서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종류의 물리적 교통수단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왕기하 2장 16절을 읽습니다. 엘리야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이르되, 아, 우리가 그를 찾아야 하리로다. 어쩌면 영이 그를 붙잡아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12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영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신약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8장과 39절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사로잡았습니다.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기뻐하며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Philip은 Azotus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구약의 현상일 뿐만 아니라 신약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고전 이전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일종의 낡은 세계 현상입니다.

에스겔에게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정착지로 돌아오며 지쳤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앉아 7일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잘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훌륭하지만 끔찍한 환상을 본 후 감정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동 수용소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은 시리즈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거기에 있었는지, 아니면 유대 노동 수용소가 여럿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쟁 포로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빌론 동쪽 니푸르 근처에 있는 그발 운하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발 운하는 메소포타미아 중심부에 있는 복잡한 운하 네트워크의 일부였습니다.

강물을 운반하고 물품과 음식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이러한 큰 운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운하의 또 다른 목적은 관개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하는 유프라테스 및 티그리스 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150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물이 없는 평탄한 평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하 시스템은 아마도 수세기 전에 개통되었을 것입니다. 농작물과 과일 재배를 위한 관개 시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망명자들이 해야 했던 노동 수용소에서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기 앉아서 엄지손가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작업이 필요했나요? 7세기에는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사이에 일련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전체가 황폐화되고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개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다시 개장하고, 들판에서 일하고, 보트에 짐을 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에스겔도 해야 했던 노동 수용소에서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에스겔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3.16부터 5장의 끝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강의 전에 해당 자료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에스겔서를 가르칠 때 레슬리 알렌 박사(Dr. Leslie Allen)입니다. 2부, 에스겔의 환상적 부르심과 사명입니다. 에스겔 1.1-3.15.